

‘천국 전체는 한 사람(a Single Man) 모습이다’

영과 육(靈肉)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천국 전체는  
한 사람 모습이다  
(All Heaven  
in the Aggregate  
Reflects a Single Man)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6:33)

지난주, 스페덴보리 저, ‘천국과 지옥’(Heaven and Its Wonders and Hell) 7장, ‘각 공동체는 보다 작은 형태의 천국이고, 각 천사는 가장 작은 형태의 천국이다’(Each Society Is a Heaven in a Smaller Form, and Each Angel in the Smallest Form)에 이어 오늘은 8장, ‘천국 전체는 한 사람 모습이다’(All Heaven in the Aggregate Reflects a Single Man)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빛이 우리를 환히 비추셔서 이 아케이나, 곧 주님이 그동안 감추셨다가 오늘 우리에게 환히 보이시는 계시인 이 아케이나가 밝히 이해되도록, 그리고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자리하도록, 우리

59 천국 전체가 한 사람 모습이라는 사실은 세상에서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비의(秘義, arcanum)이지만, 그러나 천국에서는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과 이와 관련된 세부 사항들을 아는 것이 그곳 천사들의 지성에 있어 핵심이며, 이것을 자신들의 보편원리로 삼지 않으면 그들은 거기 의존하는 많은 것들을 밝고 명료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신들의 공동체들도, 그리고 모든 천국 또한 한 사람 모습을 알기에, 그들은 천국을 가리켜 가장 큰 사람이요, 신인(神人, the Divine man)이라 합니다. 디바인(Divine, 神的)이라 하는 이유는 천국을 이루는(make) 것이 주님의 신성(神性, the Divine)이기 때문입니다. (AC.7-12)

※ 글 번호 AC.7-12 내용은 ‘천국을 이루는 것은 주님의 신성’(It Is the Divine of the Lord That Makes Heaven)이라는 내용으로, 지난 8월 14일과 21일 주일 설교 때 다루었습니다. 참고하세요.

‘천국 전체는 한 사람(a Single Man) 모습이다’

※ 천국 전체가 한 사람 형태로 나타나며, 그래서 ‘천국은 가장 큰 사람(the Greatest Man)’이라는 이런 놀라운 사실을 수년 전 처음 접했을 때, 저 역시 무척 생소함과 이질감을 느껴 경계심을 깔고 이 글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실제로 전에 있었던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면, 충주봉쇄수도원의 수도원교회를 섬기시는 어느 장로님이 이런 내용에 마음을 활짝 여시길래 하루는 아무 사전 준비와 주의도 없이 이 사실을 그분에게 불쑥 말씀드렸다가 그분이 그만 황급히 마음 문을 닫고 저를 멀리하셨던, 매우 안타까운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리 주님의 계시, 곧 아케이나요, 저에게는 밝히 깨달아지고 감사한, 참 놀라운 내용이라 하더라도 정작 상대방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내용이어서 자칫 이단 시비 같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은 사례입니다. 사람은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마련이어서 자기 내면이 열린 만큼만, 자기 속 역량이 준비된 만큼만 들을 줄, 볼 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듣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에게 맞춰 말하는 사랑과 지혜, 스킬과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60** 영적이며 천국적인 것들에 대한 바른 이해가 전혀 없는 사람들은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이 이런 형태와 이미지로 배치되고 결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사람의 가장 바깥에 해당하는 자연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사람을 구성하는 것이며, 그런 걸 떠나서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이 사람인 것은 그런 것들 때문이 아니라 진리를 이해하고, 선을 의도하는 능력 때문에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이해함과 의도함이야말로 사람을 이루는 영적, 천적인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다들 아는 사실은, 모든 사람의 퀄리티는 각자의 이해(*understanding*)와 의지(*will, intentions*)의 퀄리티로 결정된다는 것과 그리고 또 그의 이 세상 몸은 세상에서 그의 이해와 의지를 섬기기 위해, 그리고 자연계의 가장 바깥, 곧 일상 가운데서 그들 이해와 의지의 쓰임새를 잘 성취하기 위해 지음 받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유로, 몸은 스스로 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대신 이해와 의지에 철저히 종속되어 늘 움직이는 것인데, 어느 정도냐 하면 사람의 혀와 입술은 단지 그가 생각하는 것을 말

‘천국 전체는 한 사람(a Single Man) 모습이다’

로 대신 표현하는 것일 뿐이요, 사람의 몸과 팔다리는 단지 그가 의도하는 것을 움직임으로 대신 나타내는 것일 뿐일 정도입니다. 이런 걸 보면, 이해와 의지가 행하는 것이지, 몸이 스스로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해와 의지에 속하는 것들이 사람을 이루며, 이런 것들이 몸의 구석구석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미치는 것을 보면, 즉 내적인 것이 외적인 것에 미치는 것을 보면,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은 형태가 같으며, 이런 이유로, 사람을 일컬어 내적 인간, 즉 영적 인간이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 형태에 있어 가장 광대하고 가장 완벽한 사람입니다.

※ 숨을 거두자마자 매장된 어떤 사람의 경우, 그는 사후 거의 하루 정도 땅속 관 안에서 자신의 시신과 함께 있었는데 참 놀라운 것은, 자신은 여전히 그 몸에 ‘포개어져’ 있었는데 살아있었을 때와는 달리 정말이지 손가락 끝조차 까딱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과연 위 내용은 사실이며, 사람의 몸이라는 이 육체는 그냥 영이 입고 있는 옷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몸을 학대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렇다고 너무 몸에 매달려서도 안 되겠습니다. 몸은 자기를 예쁘게, 혹은 멋지

게 사람들에게 보이며, 사람들 가운데서 자신을 높이는 용도로 쓰여서는 안 되고, 대신 이웃 사랑, 곧 체어리티(charity)를 통한 주님 사랑의 용도로만 부지런히 사용되어야 하겠습니다.

61 사람에게 대한 천사들이 가진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은 사람이 그 몸으로 행한 행위들에 관해서는 전혀 무슨 생각이 없고, 오직 그런 행위를 왜 했는지 그 동기에 대해서만 생각합니다. 이걸 그들은 그 사람 자체라 하며, 이해에 관해서는, 의지와 일치할 때만 그 사람이라 합니다.

※ 사람의 의지가 그의 생명 바로 그 자체[라, 에세, *esse*]이며, 사람의 이해는 거기서 나오는 그의 생명의 출발[라, 이그지스테레, *existere*, 발현]입니다. 사람의 주된 생명은 그의 의지의 생명이며, 여기서 이해의 생명이 전개됩니다. 사람은 그의 의지와 그 의지로 말미암는 이해로 사람입니다.

※ 세상 법정은 대체로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물증으로 판단합니다. 속에 감추어진 숨은 동기는 잘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심증이라는 것도

‘천국 전체는 한 사람(a Single Man) 모습이다’

있어 어느 정도는 판사 재량에 따라 참작이라는 걸 하지만 말입니다. 우리도 어쩔 수 없긴 하지만 가급적 천사들처럼 그 숨은 동기를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처럼 사람을 그 걸 사람이 아닌, 속 사람으로 살필 수 있게 되기를 힘써 구해야 하겠습니다.

**62** 사실, 천사들은 천국 전체가 사람 모습인 것을 못 봅니다. 천국 전체는 어떤 천사의 뷰에도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지요. 다만 수천의 천사들로 구성된 멀리 떨어진 공동체들이 사람 형태인 것을 가끔 보기 때문에, 그들은 그 공동체를 일부로 하는 천국도 사람 모습일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가장 완벽한 형태에서는 그저 둘 사이 더 크니 더 작니 하는 크기만 다를 뿐, 전체는 (generals) 부분들(parts)과, 부분들은 전체와 같은 모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내적, 즉 가장 높은 신성(神性, the Divine)은 모든 것을 보시기 때문에, 주님의 시야로는 천국 전체가 사람 형태임이 틀림없다고 말입니다.

※ 우리도 평소 이런 시야를 연습하

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가령, 목회자로서 교회 전체를 ‘한 사람, 하나’로 늘 인식하고 있다면, 그 안에 별의별 지지고 볶고 하는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한 몸’이라는 이 인식이 딱하니 중심을 잡게 하고,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작게는 가정과 형제간을, 크게는 교단과 교파, 기독교 전체를 말입니다.

**63** 천국이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주님에 의해 마치 한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로 다스려집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은 전체로든 각 부분으로든 수많은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체로는 사지(四肢, members)와 기관들(organs), 그리고 내장들(viscera)로, 부분으로는, 일련의 섬유들(fibers)과 신경들(nerves) 및 혈관들(blood vessels)로, 또 지체 안에 지체가, 부분 안에 부분 식으로 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움직일 때 그는 마치 한 사람처럼 움직입니다. 천국도 주님의 도우심(auspices)과 인도하심 아래 이와 똑 같습니다.

※ 저는 채널A라는 방송의 ‘나는 몸신이다’라는 프로를 오랫동안 보아

‘천국 전체는 한 사람(a Single Man) 모습이다’

오고 있는데요, 이 프로가 얼마 전에 400회를 지났습니다. 이 프로는 사람 몸 여기저기 구석구석 오만가지를 다 다루고 있는데 이를 통해 그동안 의학 쪽으로는 문외한에 가까웠던 제가 나뉠 인체에 대한 지식을 갖추게 되었고, 이 지식이 지금은 이런 아케이나, 곧 천국의 구조와 속성 등에 관한 신비한 사실들을 별 어려움 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밑거름이 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64** 사람 안에서 참 많은 다른 것들이 마치 하나인 것처럼 움직입니다. 그 가운데 몸 전체의 유익을 위한 뭔가를 행하지 않거나 어떤 쓰임새를 수행하지 않는 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몸 전체는 부분들을 위한, 그리고 부분들은 전체를 위한 어떤 쓰임새를 수행합니다. 전체는 부분들로 구성되며, 부분들은 모여서 전체를 형성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각각의 것들과 모든 것들이 전체와 그 유익에 관련이 되는 그런 어떤 형태 안에서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함께 조인, 마치 하나처럼 움직이는 것입니다.

※ 저는 이런 비슷한 생각을 바울 서신의 다음과 같은 구절들을 암송할 때 붙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론을 공부할 때이지요.

<sup>21</sup>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sup>22</sup>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엡2:21, 22)

<sup>15</sup>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sup>16</sup>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엡4:15, 16)

이 구절들을 암송하면서 마치 주방에서 전을 뒤집을 때조차 주님을 생각한 로렌스 형제처럼 나 역시 교회에서 키보드를 두드리거나 어느 심방 전도사가 불러 그의 자리에 가서 프린트하는 일을 도울 때조차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소한 일의 영적 의미를 붙들고자 몸부림쳤던 장면들이 생각납니다.

[2] 천국들 안에도 비슷한 연합이

마6:33, HH.59-67

‘천국 전체는 한 사람(a Single Man) 모습이다’

존재합니다. 그들은 모두 어떤 같은 형태 안에서 쓰임새를 따라 결합이 되는데요, 그 결과, 공동선(公同善, common good)을 위한 쓰임새를 수행하지 않는 구성원들은 마치 뭔가 종(種)이 다른 자들처럼 이질적이어서 천국 밖으로 추방됩니다. 쓰임새의 삶을 산다는 건 타인에게 선을 행하고자 하는 동기가 공동선을 위해서일 경우입니다. 그 동기가 공동선이 아닌, 자신을 위해서일 경우는 쓰임새의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후자는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전자는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인다는 것이며, 그들이 스스로가 아닌, 주님으로 말미암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유일하신 분, 만물의 근원 되시는 분으로 바라보며, 주님의 나라를 전체, 즉 추구해야 할 선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다음 주님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 6:33) *Seek ye first the kingdom of God and his righteousness, and all things shall be added un*

*to you. (Matt. 6:33)*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주님의 선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 말씀에서 ‘정의’는 선, ‘공의’는 진리에 대한 서술입니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함’은 선과 진리를 행하는 것입니다.

※ 그래서 혹시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을 때, 그 동기가 명료하지 않으며, 석연치가 않으면 이 한 가지 기준, 곧 ‘쓰임새’라는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나의 이 추구가 주님 나라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인가’ 하는 기준 말이죠.

[3] 천국에서 주님의 나라를 사랑하며, 또한 추구하는 사람들은 생전에 자기 조국의 선을 자신의 것보다, 자기 이웃의 선을 자기 자신의 것보다 더 사랑한 사람들입니다. 그곳에서는 주님의 나라가 조국이기 때문이며, 또 자아가 아닌 선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선이 이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두가 가장 큰 사람, 곧 천국에 있게 됩

‘천국 전체는 한 사람(a Single Man) 모습이다’

니다.

※ 가장 높은 뜻으로는, 주님이 이웃이십니다. 결과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것은 곧 선과 진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으로 말미암은 그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으로 말미암은 모든 선이 이웃이며, 선을 의도하고 행하는 것,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 이 ‘공동선’에 관한 내용은 24장 ‘천국 안의 다스림’(Governments in Heaven)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65** 천국 전체가 한 사람을 반영하고, 그 생김새조차 가장 큰 형태를 가진, 영적으로 신적(Divine)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처럼 천국도 사지들, 기관들로 배치 및 그와 유사한 이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천사들은 이 또는 저 공동체가 어느 부위(member)에 속하는지를 압니다. 그들은 이 공동체는 머리 어느 부분(part), 즉 지역(province)에 있다, 가슴 어디에, 허리 어디에 등등 식으로 말합니다. 대략적으로는, 가장 높은,

즉 세 번째 천국은 머리에서 목까지, 가운데, 즉 두 번째 천국은 가슴에서 허리와 무릎, 가장 낮은, 즉 첫 번째 천국은 발에서 발바닥, 그리고 팔에서 손가락까지를 형성합니다. 팔과 손은 비록 허리 곁에 있을지라도 사람의 가장 낮은 부위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왜 세 천국이 있나 하는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 그래서 저는 점점 예를 들면, 제 몸 어디가 안 좋으면 그곳은 천국 어느 공동체와 상응하는 걸까 생각하며, 천국 그 공동체와 다시 한번 건강한 연결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직은 좀 생소하고, 좀 뽀죌하지만... 점점 어떤 응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66** 천국 아래에 있는 영들은 천국이 위뿐 아니라 아래에도 있다는 말을 들으면 몹시 놀랍니다. 그들 역시 세상 사람들처럼 천국은 위에만 있다는 믿음과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그들은 천국의 배치는 사람과 같아서 사람의 지체들, 기관들 및 내장들의 배치처럼 어떤 건 위에 어떤 건 아래에, 그리고 그 각각에 있어서도 어떤 건 안에, 어떤 건 밖에

마6:33, HH.59-67

‘천국 전체는 한 사람(a Single Man) 모습이다’

있을 수 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  
다. 즉 그들은 혼란스러운 천국관  
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람의 멘트입니다. 깊이 새겨들어야  
합니다...

※ 실제로 제 주위 열에 아홉, 아니  
그 이상,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이  
천국에 대해 참으로 무지함을 보니  
다. 안타깝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67** 천국에 대한 이러한 사실  
들, 곧, 천국은 가장 큰 사  
람이라는 사실들을 이렇게 밝혀  
나가고 있는 이유는 뒤이어 나올  
천국에 관한 내용들 때문인데요,  
그 내용들, 곧 천국의 형태라든지,  
주님과 천국 간 결합이라든지, 천  
국과 사람 간 결합, 영계에서 자연  
계로 흘러드는 인플럭스(*influx*, 入  
流), 그리고 상응 등은 그전에 천  
국에 관한 이런 기본적인 사실들  
을 알고 있지 않으면 도무지 이해  
할 수도, 무슨 명료한, 선명한 아  
이디어조차 가질 수가 없기 때문  
입니다. 참고로, 이 주제들은 앞으  
로 이어지는 내용들이며, 그 적절  
한 순서로 다루어지게 됩니다. 이  
들 주제들에 빛을 조금 비추기 위  
해, 위 내용들을 미리 살핀 것입니  
다.

여러 주 거듭되는 천국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 같고, 도무지  
알쏭달쏭하실 줄 압니다. 그러시더  
라도 제발 부디 외면하지 마시고,  
그때마다 주님께 엎드리시며, 주님  
의 빛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  
용들은 우리의 영원을 안내하는, 너  
무나도 귀한 말씀들, 계시, 아케이나  
이기 때문입니다. 거듭 지난 원고들  
을 읽고 또 읽어 거의 외우실 정도  
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를 이 아케이나의 세계  
로 초대합니다. 이는 저의 초대가  
아니라 주님의 초대입니다. 부디 이  
초대에 응하셔서 말씀을 피상적으로  
만 읽지 마시고 천국 천사들처럼 그  
본뜻으로, 그 속뜻으로 읽어 지상에  
서도 천국을 경험, 사시며, 천국의  
모든 부요를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 여호와 하나님 구주 예  
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  
원합니다. 아멘

2022-09-25(D1)

※ 천국과 영계를 27년간 왕래한 사

한결같은교회 변일국 목사